



친환경 사업으로 자활의 꿈을 이루어 나갑니다

— 음성자활후견기관 스팀세차 사업 —

음성자활후견기관(관장 김영옥)은 200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지역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능력을 향상시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자립을 도와주는 복지 기관입니다.

음성자활후견기관에서는 현재 재활용 사업, 간병사업, 세탁사업, 무료 화장실전문정소사업, 양봉사업, 모어자원공동체, 그린건축 공동체 사업단으로 나누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자동차 세차 시장은 연간 수천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음성자활후기관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키워주려 애쓰고 있다.

이동 스팀 세차는 2005년부터 시작한 사업단입니다. 음성은 농촌 지역이고 지역적 특성을 찾아 사업단을 꾸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조사를 통하여 이동 스팀 세차는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으나 충북지역 2곳 자활후건기관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지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즈음 진천 자활후건기관에서 스팀세차기가 있다며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 있으면 써보라며 건네준 스팀세차기로 용기를 내어 시작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차량 등록 대수 천 만대를 넘어서 물을 이용한 세차 시장은 생활의 필수 산업으로 연간 수천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수백억톤의 수자원이 소요되어 물의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동스팀세차는 물한컵의 양(약200~500ml)을 사용하여 자동차의 묵은때와 기름까지 청소하는 신개념 세차입니다.

세차업은 고액의 자본이 필요한 자동세차기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발달하고있습니다. 수요자가 많다고 해도 자활후건기관이 세차 사업에 뛰어들기는 자본 문제등 역부족이지만 이동 스팀세차 사업은 기존 세차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 폐수정화시설 등 많은 자본의 소요와 관련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참여자들이 고도의 기술습득 필요 없이 작업경험을 통한 기술축적이 가능하고 무공해 광택제를 이용한 친환경적 사업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어디서나 세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수품인 자동차, 하지만 시간을 내어 가야만 하는 세차장 대신 세차가 필요 할 때 어디에서나 전화만 주시면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넓은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지만 잘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군청 각 읍면 사무소, 학교, 아파트를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호응이 좋아 희망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아직은 숙달되지 않아 하루 10여대 정도밖에 닦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를 다 만족시키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하루쯤 편히 쉬어서 좋을 것 같은데 참여자분들이 더 안타까워하며 비 오는 날이 싫다고 합니다. 이동스팀세차에 참여하고 있는 다섯 분 모두에게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2-3년 후 자활 공동체로의 목표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자료제공 : 음성자활후건기관

주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67번지 3층
전화 : 043)873-7898